

고등교육재단 찾아 유학길 배웅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성살아 사회환원, 변화 선도를”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 격려 행사
하버드 등 해외 우수대학서 박사 과정

최태원 SK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의 해외 유학길을 직접 배웅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SK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유학 동안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말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해달라”며 “쓰면 쓸수록 사라지지 않고,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재단을 설립한 최종현 SK 선대회장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사회를 위한 지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성인으로 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상단 가운데)과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이 ‘덕분에 챌린지’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

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올해 우리 모두 처음 겪어보는 팬데믹을 경험 중”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데 힘써 달라”고 응원했다.

최 회장은 이날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사장으로 참석했다. 인재육성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매년 개최되는 ‘SK 신입사원들과의 대화’, 재단 선발 장학생 격려 오찬 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3명과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올해 장학생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시카고, MIT 등 해외 우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 CNS, 하반기 ‘AM’ 사업적용 본격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임직원 약 450명 태스크포스 참여
IT시스템 근간 바뀌 사업 경쟁력 ↑

LG CNS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AM)’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며 하반기 AM 적용 사업 확대에 주력한다.

LG CNS는 AM을 클라우드와 함께 IT서비스 업계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업·기술·이행조직의 임직원 약 450명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다.

AM은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을 같이 오는 박빙 방식을 지양한다. 기존에는 차세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0년을 주기로 IT시스템의 전면 교체 가 이뤄졌다. 그러나 AM을 활용하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AM을 통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던 IT 시스템을 수백 개 이상 서비스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해된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특정 기능만 선택해 변경이 가능하다.

과거 IT시스템은 모든 서비스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개별 기능의 변경과 삭제가 어려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AM을 이용하면 IT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AM의 궁극적 목적은 IT시스템의 근간을 바꿔서, 사업 경쟁력을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위치한 LG CNS 사옥 전경. /LG CNS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모든 비즈니스는 IT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고객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처하려면, IT시스템도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LG CNS는 이미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AM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존 IT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단순히 이관하는 방식으로는, 클라우드를 100%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에 맞게 기존 시스템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초 LG CNS는 빌드센터라는 기술전문 조직을 출범해 거대한 IT시스템을 작은 서비스 단위로 분해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 서비스 개발과 동시에 테스트·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인 ‘CICD’ 등 AM 전문 기술을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더 똑똑해진 자율주행로봇.. 병원·식당 서빙 ‘척척’

LG전자 ‘LG 클로이 서브봇’ 출시
다수 목적지 설정가능, 장애물 감지

LG전자가 서빙 로봇을 정식 출시했다. 클로이 라인업도 안내로봇과 홀로봇, 셰프봇에 이어 5종으로 늘었다.

LG전자는 8일 ‘LG 클로이 서브봇’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랍형과 선반형 2종으로 내놨다.

서브봇은 공식 출시에 앞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과에 공급됐다. 국내 병원에는 처음 도입됐다. 혈액 검체와 처방약, 수액 등 수시로 운반해야 하는 물품 배송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CJ푸드빌 제일제면소와 빙스, 계절밥상 등 매장에 선반형 서브봇을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서브봇은 병원과 식당뿐 아니라 호텔과 사무실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서울대병원에서 운용중인 클로이 서브봇. /LG전자

으로 기대된다.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130cm 크기로, 서랍형은 서랍 3칸에 최대 15kg까지, 선반형은 최대 4개 칸에 20kg까지 실을 수 있다. 배송 중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잠금 장치도 장착했다.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다수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장애물을 감지하

면 “죄송합니다. 잠시만 양보해주세요”라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제작했다. 이미 2017년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며 안정성을 검증했다.

운영 중에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친밀성을 높이기도 한다. 영어를 지원해 외국인이 있는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운영은 관리자가 로봇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용 이력, 배송 스케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로봇이 단순한 업무를 대신하면 직원들은 육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고객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봇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토탈, 빅데이터 활용 설비정보포털 구축

공장 안전가동·효율성 제고 두토끼
도면·점검이력 등 다양한 정보 검색

한화토탈이 국내 석화업계 최초로 공장 설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공장의 안전가동과 운영효율성 제고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한화토탈은 8일 대산공장에서 가동 중인 모든 설비들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설비정보포털(AI P)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이 이번엔 구축한 설비정보포털은 대산공장에 설치돼 있는 30만 개 설비에 대한 사양, 도면, 점검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일반 포털 사이트처럼



한화토탈 직원이 설비정보포털을 사용하고 있다. /한화토탈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화토탈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약 3만2000시간의 업무시간 단축, 설비 현황분석과 적시 정비활동을 통한 사고 예방 등 매년 2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BMW코리아, ‘뉴330e’ 국내 공식 출시

12kWh 배터리 장착, 113마력·140km/h

BMW 3시리즈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로 영역을 확대한다.

BMW코리아는 8일 뉴330e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330e는 뉴3시리즈 세단의 PHEV 모델이다. 12kWh 배터리를 장착해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4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113마력에 최고 140km/h까지 달릴 수 있다.

주행 성능은 여전히 강력하다. 트윈 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모터

와 함께 최고출력 292마력에 최대토크는 42.8kg·m에 달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9초만에 가속한다.

특히 스포츠모드에서 엑스트라부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10초 동안 41마력을 추가로 발휘하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붙일 수 있다. 복합연비는 16.7km/L에 달하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와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편의 기능도 다수 탑재했다. LED 헤드라이트와 3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콤포트 액세스 2.0, 선루프, 엠비언트



BMW 뉴 330e. /BMW코리아

라이트, 무선충전 등과 함께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는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킹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등을 기본 장착한다.

가격은 뉴 330e 럭셔리가 6260만원, 뉴 330e M스포츠가 6460만원이다.

/김재용 기자

포스코, 스마트워치 통해 근무자 안전 강화

신체 이상 감지시 즉각 구조신호

포스코가 현장 근무자의 신체 이상 감지시 즉각 구조신호를 보내는 스마트워치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8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위험 개소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 1200여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배포했다. 스마트워치는 현장 근무자의 넘어짐, 심박이상, 추락 등 신체 이상이 실시간 감지되면 주변 동료들에게 즉각 구조신호를 보냄으로써 구조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최정우 회장은 “안전은 그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전에 대비하고 산업 전 생태계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는 향후 지능형 CCTV 고위험 알람 등 최신 기술을 제철소 현장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